

한·미간의 우호·동맹·협력관계를 강화

전두환 대한민국대통령각하와 「로널드 레이건」 미합중국대통령각하간의 공동성명

1981년 2월 2일

1. 전두환 대한민국 대통령 및 동 영부인은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1981년 2월 1부터 3일까지 「워싱턴」을 공식방문하였다.

2. 양국 대통령은 2월 2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집중하고도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현 국제정세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상호관심사를 토의하였다.

동 정상회담에는 한국측에서 신병현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노신영 외무부장관, 주영복 국방부장관, 김용식 주미대사 및 김정원 대통령비서실장이 배석하였으며, 미측에서는 「알렉산더 헤이그」 국무장관, 「캐스퍼 와인버거」 국방장관, 「윌리엄 브로크」 백악관 특별통상대표, 「리처드 알렌」 대통령 안보담당보좌관 및 「윌리엄 글라이스틴」 주한 미국대사가 배석하였다.

3. 양국 대통령은 국제정세를 검토하였으며,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 있어서의 평화유지의 긴요성을 재확인하였다. 전대통령과 「레이건」 대통령은 1954년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명시된 상호간의 의무를 준수할 것을 다짐하였다. 「레이건」 대통령은 미국이 태평양세력으로서 동 지역의 평화와 안전보장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다. 전대통령은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한 미국의 제반정책에 대하여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하고, 미국이 국제문제에 있어서 계속하여 확고한 지도력을 행사하여야 한다는 견해를 강조하였다.

4. 전대통령은 한반도의 안보정세와 북한으로부터의 지속적인 위협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였다.

「레이건」 대통령은 미국이 한반도로부터 미지상군 전투병력을 철수시킬 계획이 없음을 전대통령에게 보장하였다. 양국 대통령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필수적으로 기여할 한·미 양국간의 침략억제 및 방위상의 협력강화를 다짐하였다.

5. 전대통령은 대한민국이 국군현대화를 통한 자주국방 능력제고를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레이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계속적이고 현저한 노력에 대하여 찬의를 표명하였으며, 미국은 한국의 침략억제능력 증강에 필요한 적절한 장비류의 대한판매와 방위산업 기술을 계속 제공할 것임을 확인하였다.

6. 「레이건」 대통령은 전대통령에게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위하여 북한과의 건설적인 대화를 재개하려는 한국정부의 노력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보장하였다. 「레이건」 대통령은 전대통령의 획기적인 1981년 1월 12일자 남·북한 최고책임자 상호방문 제의에 대하여 찬의를 표명하였다.

「레이건」 대통령은 미국이 여하한 대북한 협상에 있어서도 대한민국이 반드시 완전히 참가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양국 대통령은 북한의 주요 동맹국들이 한국에 대하여 상응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북한에 대한 어떠한 일방적 조치도 이 지역의 안정과 평화증진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데 대하여 의

건의 일치를 보았다.

7. 양국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전통적인 우호관계, 동맹관계 및 협력관계에 유의하면서, 양국정부간의 일체의 합의를 즉각 개최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한·미 년례안보협의회의는 금년 봄 상호 편리한 시기에 조속히 개최될 것임.

-양국의 전반적 경제관계를 다루는 한·미 연례경제협의회의가 개최될 것이며, 경제담당 국무차관이 동 협의를 개시하기 위하여 금년 상반기 중으로 미국대표단을 인솔, 방한할 것임.

8. 전대통령과 「레이건」 대통령은 양국간의 경제관계의 규모가 계속 증대하고 있는 데 대하여 만족을 표명하고 보다 자유스러운 국제무역 체제의 육성을 모색하기로 합의하였다.

9. 전대통령과 「레이건」 대통령은 상호 유익한 한·미간의 교역에 있어서 1970년에 5억 3천 1백만불이던 교역량이 1980년에는 100억불로 극적으로 증대하고 대한민국이 오늘날 미국에 있어 제12위의 교역국이 된 데 대하여 만족을 표명하였다.

「레이건」 대통령은 미국 농산물 수출시장으로서 제5위인 한국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하였다. 전대통령은 한국의 금년 미곡수요에 대한 미국의 적극적인 호응을 환영하였다.

10. 양국 대통령은 에너지문화에 관한 양국간의 긴밀한 협력을 재확인하였다. 미국은 양국간의 안보이해에 영향을 미치는 긴급사태 발생시 한국의 에너지 공급확보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한국은 미국의 석탄을 수입하기 위한 장기계약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레이건」 대통령은 미국이 핵연료, 발전설비 및 발전기술의 안정적인 공급자가 될 것임을 약속하였다.

11. 양국 대통령은 정부 및 민간경로를 통하여 양국 국민간에 가일층의 상호이해와 교류를 증진시킬 필요성을 인정하였으며, 양국정부에 의하여 공동출자될 한·미문화교류위원회를 조기에 설치할 것을 합의하였다.

12. 「레이건」 대통령은 「워싱턴」에 신축될 동양박물관을 위하여 전대통령이 대한민국국민으로부터의 다액의 기부를 「스미소니안」 박물관에 전한 데 대하여 각별한 사의를 표명하였다. 동 박물관은 미국국민과 아시아제국 국민들과의 상호문화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더욱 높여 줄 것이다.

13. 양국 대통령은 환태평양지역의 국제적 협력을 위한 상호간의 노력을 다짐하면서 양국간에서 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여타 우방국들과도 긴밀히 협의해 나갈 의사를 표명하였다. 전대통령은 「레이건」 대통령이 편리한 시기에 대한민국을 방문하도록 초청하였으며, 「레이건」 대통령은 동 초청을 쾌히 수락하였다.

14. 전대통령과 동 영부인은 그들과 일행을 대신하여 「레이건」 대통령과 동 영부인 그리고 미국 국민들에게 「워싱턴」 공식방문 및 기타 지역 방문시 베풀어준 우호적인 환대와 후의에 심심한 사의를 표명하였다.